

한국의 간호사들이 행하는 간호중재의 규명*

(Identification of Nursing Interventions in Korea)

함 영 희

본 연구는 첫째, 한국간호사들이 행하는 간호중재를 규명하고, 둘째, 한국간호사들이 행하는 간호중재를 미국간호사들이 행하는 간호중재와 비교하고, 셋째, 표준화된 언어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서술한다.

연구대상은 한국의 2 병원에서 일하는 수 간호사와 평 간호사를 포함한 443명의 간호사이며, 미국과의 비교를 위해 수 간호사를 제외한 한국자료를 (N=390)전에 자료수집이 된 미국자료 (N=219)와 비교하였다.

연구도구는 Iowa Intervention Project Team 이 개발한 336 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 “간호중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간호 중재 설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부분은 336 간호중재의 이름 (label)과 정의(definition)가 표기되었으며, 비슷한 간호중재는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NIC)의 Taxonomy 구조 내에서 26개의 Class로 묶어진다. 다시 26개의 Class는 6개의 Class는 6개의 Domain으로 크게 묶어지는데, 6개의 Domain은 다음과 같다. (a) Physiological: Basic Domain; (b) Physiological: Complex Domain; (c) Behavioral Domain; (d) Family Domain; (e) Safety Domain; and (f) Health System Domain. 또한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지는 간호사들이 각각의 간호중재를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를 측정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a) 거의 행하지 않는다; (b) 거의 한달에 한 번 행한다; (c)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행한다. (d) 거의 하루에 한 번 행한다. (e) 하루에 여러 번 행한다.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은 개방식 질문으로 만들어졌으며, 336개의 간호중재 혹은 빠진 간호중재가 있으면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자료를 위해 설문지는 본 연구지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고, Back-translation을 이용하여 한글로 번역한 설문지는 다시 bilingual nurse에 의해 영어로 옮겨졌고, 마지막으로 영어로 옮겨진 설문지를 원래의 영문으로 된 설문지와 비교한 후에 (Equivalence Test)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 간호사들은 336 간호중재 모두를 행하고 있으며, 21개의 간호중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도 행하는 간호중재 중에서 Physiological: Complex Domain에 속한 간호중재를 가장 빈번하게 행하며 Family Domain에 속한 간호중재는 “비경구적 투약(Medication: Parenteral)”으로써 일주일에 거의 11번 정도 행하고 있었으며, 가장 적게 행하는 간호중재는 “동물 이용 요법(Animal Assisted Therapy)”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 간호사들은 특수분야에 관계없이 비슷한 간호중재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특수분야와 관련된 독특한 간호중재들을 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수 내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가

* The University of Iowa, Ph.D Dissertation, Dec.1995

장 많이 간호중재를 행하고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간호중재를 가장 적게 행하고 있었다. 특히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다른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Psychosocial한 간호중재를 빈번하게 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임상경험이 많을 수록, 한국간호사들은 더 많은 간호중재를 빈번하게 행했다. 특히, 석사학위를 받은 간호사는 Behavioral Domain에 있는 간호중재들을 더 많이 행했는데, 예를 들면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사회와 증진(Coping Enhancement)”, “의사결정 지지(Decision-Making Support)” 등이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은 Physiological: Complex Domain에 있는 간호중재들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 더 많이 행했는데, 예를 들면 “뇌부종 관리(Cerebral Edema Management)”, “반사 장애 관리(Dysreflexia Management)”, “기구를 사용한 호흡(Mechanical Ventilation)” 등이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간호사들은 Behavioral Domain에 있는 간호중재를, 임상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또는 1~5년 사이의 경험을 가진 간호사보다 더 많이 행했는데, 예를 들면, “죄책감 극복 증진(Guilt Work Facilitation)”, 진실 말하기 (Truth-Telling)” 등이다. 또한 6~10년 사이의 임상경험을 가진 간호사들은 Self-Care Facilitaion Class에 있는 “옷 입히기(Dressing)”, “두발 간호(Hair Care)”, “구강건강 유지(Oral Health Maintenance)” 등을 임상 경험이 1년 미만인 간호사들보다 더 빈번하게 행했다.

전반적으로 한국간호사들과 미국간호사들은 Physiological: Complex Domain에 속한 간호중재들을 빈번하게 행하고, Family Domain에 속한 간호중재들을 적게 행했다. 미국간호사들은 한국간호사에 비해 더 많은 간호중재를 하루에 행하고 있으며, 한국간호사들은 “비경구적 투약”(일주일에 거의 11번 정도)을 가장 빈번하게 행하고, 미국간호사들은 “적극적 경청”(일주일에 13번 정도)을 가장 빈번하게 행했다. 한국·미국간호사 모두가 “동물이용 요법”을 가장 적게 행했다. 두 나라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간호사들은 Physiological: Complex Domain에 속한 간호중재들을 미국 간호사보다 더 빈번하게 행했고, 반면에 미국 간호사들은 Behavioral, Family, Health System Domain에 속한 간호중재들을 한국 간호사보다 더 빈번하게 행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간호사들은 “열 치료(Fever Treatment)”, “체온조절(Temperature Regulation)”, “출혈예방을 위한 간호(Bleeding Precautions)”, “혈액제제 투여(Blood Products Administration)”, “정맥주사 놓기(Intravenous Insertion)” 등을 미국 간호사보다 빈번하게 행했다. 반면에 미국 간호사들은 “신체 이미지 강화(Body Image Enhancement)”, “대응능력 강화(Coping Enhancement)”, “상담(Counseling)”, 유머(Humor)”, “간호 제공자지원(Caregiver Support)”, “가족참여(Family involvement)”, “환자권리보호(Patient Rights Protection)”, “의뢰(Referral)” 등을 한국 간호사보다 빈번하게 행했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미국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국간호사보다 더 많은 간호중재를 행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환자실이 아닌 병동에 근무하는 한국간호사들은 중환자실이 아닌 병동에 근무하는 미국간호사들보다 더 많은 간호중재를 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번역을 어렵게 한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와 한글과의 구조적인 차이

둘째, 영어에서 수식어가 길때

셋째, 한글에서 영어와 대치되는 단어가 없을 때.

이 연구는 간호중재규명이 간호원이 산출을 위한 연구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간호지식 탐구를 위한 연구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